

유휴공간의 공간정체성 보존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space identity preservation of idle space

우 성 하, 권 기 창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창조산업연구소

Woo sung-ha, Kwon gi-chang

Graduate School of Creative Industry, Research Center for Creative Industry, Ando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급격하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에는 사용하지 않거나 잊혀져가는 유휴공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공간을 기획하여 재탄생한 문화공간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휴공간의 성공적인 문화공간기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으로써 공간정체성의 보존이 중요함을 말하고자 한다.

I. 서론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기획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성공하는 사례가 있는가하면 실패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공하기 위한 문화공간기획의 방법으로 공간정체성 보존이 중요함을 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공간정체성은 공간의 물질적인 특징을 뜻하지 않는다. 하드웨어가 아닌 특정 공간의 안에서 이루어졌던 작업과 생활 등의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다시 말해서 공간정체성의 보존은 공간 내적요인의 보존을 말하는 것이다.

II. 선행연구 및 사례선정

1. 선행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 문화공간 조성 연구”에서는 문화공간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주도형의 공간기획을 제시하였다.

이덕진은 “유휴공간을 재활용한 문화공간 구축에 관한 연구”에서 유휴공간의 문화공간화가 도시문화를 꽃피우고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좋은 방안임을 말하고자 했다. 나아가 문화 산업의 측면에서도 유효하고 적절한 전략임을 강조하였다.[2]

김현주, 이상호의 “문화공간 조성 사례에 나타나는 유휴산업시설의 재활용 계획 방법 연구”에서는 국내 사례의 분석과 함께 지역의 맥락과 요구의 반영 및 수용 측면에서의 공간기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2. 사례 선정

사례는 국외 사례로 독일의 우파 파브릭, 국내 사례로 서울의 선유도 공원을 선정하였다. 유휴공간을 기획한 문화공간기획일 것,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것, 현재도 활발히 사용되는 공간일 것의 세 가지 기준에 맞추어 선정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1. 사례 선정

구분	우파 파브릭	선유도 공원
유휴공간	• 독일의 분단 이후 30년간 폐허로 방치	• 선유도 정수장 폐쇄 (2000년)
지역사회 영향력	• 2006년 약 210개의 일자리 제공 • 매년 약 20만명의 관광객 방문	• 대한민국 최초의 환경재생 생태공원 • 서울의 명물
현재진행형 문화공간	• 독일의 대표적인 문화 복합 공간 • 대안문화, 생태문화 예술가공동체마을	• 식물원, 정화원, 환경물놀이터 등의 시설 • 한강의 명소

III. 실증 분석

선정 된 두 사례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각 사례가 가지고 있는 공간정체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공간정체성이 각 사례의 문화공간기획에서 어떻게 보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사례 분석

구분	우파 파브릭	선유도 공원
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 현상소 2차세계대전 전 독일 최대의 영화사(UFA)의 영화현상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유봉 선유봉이라는 작은 언덕이 있어서 신선들이 놀던 곳이라는 뜻을 가진 경치가 수려했던 곳 선유도 정수장 한강의 정수처리시설
유희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려진 마을 버려진 공장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쇄된 정수장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 문화 공동체 문화프로그램 진행 예술가 레지던스 국제교류 프로그램 게스트 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유도 공원 환경재생 생태공원 환경놀이공간 주제정원 휴식공간 생태 및 친수공간
공간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콘텐츠 개발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친화적 공간

우파 파브릭은 유희공간이 되기 전 영화를 촬영하고 현상하던 영화개발의 공간이었다. 현재는 많은 예술가들의 예술공간과 각종 문화 프로그램이 형성되는 문화마을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과거와 현재까지의 특성을 분석하였을 때, 이 공간의 공간정체성은 문화콘텐츠의 개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공간정체성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버려진 공간으로 전락했던 우파 파브릭은 본연의 공간정체성을 확립하여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선유도라는 이름은 한강에 있던 작은 언덕인 선유봉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음을 역사적 기록으로 알 수 있다. 1925년 대홍수 후 일제의 한강 치수사업으로 언덕이 사라졌고, 1965년 양화대교가 생기면서 선유봉의 자취는 사라졌다. 그 후 1978년 선유도 정수장이 생기게 되었고 2000년에 정수장이 폐쇄되면서 결국 유희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한강의 섬이라는 공간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문화공간기획이 이루어졌고 환경재생 생태공원으로 공간이 재활용되었다. 유희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었던 선유도가 현재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환경 친화적 공간이라는 선유도 본연의 공간정체성이 잘 보존되었기 때 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현재 유희공간과 관련된 연구의 46%는 하드웨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앞의 두

사례는 공간 본연의 특징인 공간정체성이 잘 보존되어 과거와 현재의 연결성을 유지하였고 그 결과 성공적인 문화공간기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정체성의 보존은 결국 과거의 공간과 현재의 공간간의 연결성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간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았을 때 그 생명의 기억을 보존하는 것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공간의 정체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문화공간기획은 오히려 또 다른 유희공간을 창출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성공적인 문화공간기획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 [1] 우주희, 김종대, 전고필, 이선미, 김수정, “유희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연구”, 문화관광체육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 [2] 이덕진 “유희공간을 재활용한 문화공간 구축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 문화기획 · 행정 · 이론학과 학위논문(박사), pp.86-97, 2014.
- [3] 김현주, 이상호 “문화공간 조성 사례에 나타나는 유희산업시설의 재활용 계획 방법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pp.83-92, 2013.
- [4] 조연주, 신경주 “유희시설의 문화적 재생 관련 연구 경향”,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65-68, 2014.